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및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disposal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울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徐正姬

Dept. of Home Management Ulsan University

Associate Prof.: Jeong Hee, Seo

〈목 차〉

- | | |
|------------|-------------|
| I. 서론 | V. 연구결과와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disposal behavior an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 attitudes on it. Data was collected from 458 housewives who live in Ulsan city. The results indicated as follows. First, the 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 attitudes differs significantly according to wife's religion and education. Second,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disposal behavior of household durables and semi-durables differs significantly according to wife's religion and occupation. Third, the 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 attitud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disposal behavior. Fourth, as the 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 attitudes was controlled, the effects of wife's religion was disappeared.

* 이 논문은 1994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조성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 서 론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환경문제는 매우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해결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학문분야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소비자학에서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학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비자가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구매행동, 사용행동 및 처분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매행동이나 사용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처분행동은 그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하거나 재이용을 통하여 생활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구매행동이나 사용행동에 비하여 소비자가 보다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쓰레기문제를 포함하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에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는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2.28kg으로 미국의 1.6kg, 일본의 1.0kg에 비하여 2~3배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쓰레기 배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매립지선정에서 주민들의 마찰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공공정책입안가들도 소비자처분행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실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와 소비자행동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김영희, 1995; 노채영·신효식·조혜정, 1991; 서정희, 1986; 1991; 오연옥·송말희·한정화·황경혜, 1995; 이승신·이혜임·류미현, 1993; 이병찬, 1987; 이주형, 1994; 최남숙, 1994; 황인창, 1990; 현금희, 1990; Brooker, 1976; Constantiny와 Hanf, 1972; Kinnear, Taylor 및

Ahemed, 1974; Tucker, 1981; Tognacci, Weigel 및 Widden, 1972) 구매행동이나 사용행동을 할 때 환경을 어느 정도로 의식하고 있는가와 자원의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소비자처분행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에는 몇 개의 제품에 관한 소비자처분행동을 다룬 것(강이주, 1989; Burke, Corn 및 Lutz, 1978; DeBell과 Dardis, 1979; Jacoby, Berning 및 Dietvorst, 1977; Razzouk, 1980)과 소비자처분행동에 관한 개념적 모형을 구성한 Hanson(1980)의 연구,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처분행동이 아니라 노인소비자의 일반적인 처분행동양상을 다룬 연구(이민표, 1994), 처분행동을 재활용과 비재활용행동으로 구분하고 관련변수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인적 가치성향,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을 다룬 연구(박명희와 정주원, 1995), 환경의식과 생활쓰레기의 처분행동을 다룬 연구(권봉애와 강이주, 1995; 변순희와 계선자, 1995), 소비의 사용과 처분 효율성과 인구통계적 변수, 환경보전에 대한 태도와 의 차이를 다룬 연구(박명희·유혜경·박명숙·박미혜, 1995) 및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구재와 반내구재 중에서 53개의 제품을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소비자태도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서정희, 1995)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의 재활용과 관련된 소비자처분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재활용은 처리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환경을 추가로 오염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생태학적 지향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와 반내구재의 처분행동이 문제가 되며, 재활용행동에 비하여 환경을 훨씬 덜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절약효과도 더 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disposal behavior)을 개념화하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내구재와 반내구재 중에서 53개를 선정하여 이 개념을 실제로 측정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환경

보전태도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비자학의 관점에서 보다 근원적으로 쓰레기처리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는 다양한 처분행동중에서 재이용행동과 재활용행동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다. 재이용행동은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바로 처분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한 번 생산된 물건이 쓰레기로 되는 시간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 물건을 재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공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해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미치는 처분행동을 의미한다. 재활용행동은 사용된 물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생산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환경문제전문가와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행동으로 재활용행동만을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재활용행동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재이용행동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재이용행동만을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면 Harrell과 McConocha(1992)는 재활용은 우유팩 등의 포장재와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임에 비하여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와 반내구재를 재이용하는 것이므로 두 개념은 서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쓰레기를 사거나 수집하여 저장하여서 새로운 재활용품을 만드는 과

정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사회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가계와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재이용은 한 가계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가계가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계가 중심이 된다.

재활용은 재활용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쓰레기를 생산하지만 재이용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재이용이 재활용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Purcell, 1980). 재활용은 가계의 신상품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이용은 시장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가정용쓰레기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이용은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De Young, 1986).

재이용처분행동과 재활용처분행동의 이러한 개념적인 차이점은 실증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De Young(1986)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을 재이용행동과 재활용행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실증연구에서 상관관계가 .29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두 행동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관계의 강도가 낮다는 점에서 두 행동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재이용행동과 재활용행동이 모두 포함되며, 재활용행동보다 재이용행동이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것으로 보는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관점에서 자원을 보존하는 데 바람직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매우 급박한 문제인 쓰레기관리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쓰레기로 처리하기에는 그 부피가 매우 커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요즘 불법투기가 많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고 새것을 사는 과소비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정용 내구재와 반내구재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환경보전태도

환경보전태도는 환경문제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감정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다(이승신 등, 1993).

Constantiny와 Hanf(1972)는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은 교육, 소득 및 직업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Tognacci 등(1972)은 중류층의 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육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Kinneer, Tayler 및 Ahmed(1974)의 연구에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은 연평균가계소득에 따라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Brooker(1976)의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자녀수만이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Tucker(1980)의 연구에서는 환경에 관한 책임은 사회계층과는 의미 있게 관련되었으나, 소득과 연령과는 관련되지 않았다.

서정희(1986)는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태도는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소득, 남편의 직업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노채영 등(1991)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학년, 전공,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최남숙(1994)의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은 주부의 연령, 교육, 가계소득, 아파트거주여부 등의 변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권봉애와 강이주(1995)의 연구에서 아동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은 주거형태, 종교, 생활수준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순희와 계선자(1995)는 환경보전의식을 환경교육, 재활용 및 환경보전운동에의 참여 등의 3부분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 환경교육과 재활용에 관한 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보전운동에의 참여의식은 연령과 주거형태에 의해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학력,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등에 의해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환경보전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것을 요약해 보면 연구마다 환경보전태도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정의, 측정방법 및 조사대상이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을 직접 연구한 선행연구는 없으므로 소비자처분행동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Burke, Corn, Lutz(1978)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처분행동 유형 중에서 보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Harrell과 McConocha(1992)는 소비자처분행동 유형에 따라 관련변수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즉 보관행동과 폐기행동은 연령, 거주년수 및 교육에 따라, 기부행동은 연령, 가구원수 및 성에 따라, 남에게 주는 행동은 거주년수와 교육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재활용센터 이용여부는 Peter(1974)의 연구에서는 소득, 가장의 직업 및 주부의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Arbuthnot(1977)의 연구에서는 교육과 환경지식, 보수주의 및 자기통제부족 등의 변수들이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영숙·안길상·이기주(1994)의 연구에서는 여성, 기혼자, 노년층, 고학력층에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순희와 계선자(1995)의 연구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 참여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쓰레기분리수거참여행동은 연령, 학력, 주부의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및 주거형태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쓰레기폐기물의 감량화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화는 학력과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노인소비자의 처분행동을 재활용행동과 영구폐기행동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이민표(1994)의 연구에서는 재활용처분행동은 연령, 교육, 어릴 때 가정형편

및 어릴 때 소비경험에 따라서, 영구폐기처분행동은 어릴 때 소비경험에 따라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명희와 정주원(1995)의 연구에서는 가전제품류와 가구류의 경우 소비자처분행동은 연령, 소득, 교육, 이사오기전 주거형태 및 종교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권봉애와 강이주(1995)의 연구에서는 아동소비자의 처분행동은 주거형태, 가족수, 종교, 생활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명희 등(1995)의 연구에서는 제품의 처분이유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의외출복과 성인평상복을 처분하는 이유는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청소년복과 아동복을 처분하는 이유는 연령과 주거형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비디오를 처분하는 이유와 직업과 세탁기를 처분하는 이유는 종교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제품의 처분효율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는 의류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의외출복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가족수가 4인인 집단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의 처분효율성이 높았다. 성인평상복의 경우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집단과 가족수가 많은 집단의 처분비효율성이 높았고, 청소년복과 아동복의 경우에는 가족수가 적을수록 처분효율성이 높았다.

소비자의 처분유형에 관한 소비자태도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밝힌 서정희(1995)의 연구에서는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준다”와 “중고품을 사려는 사람이나 중고상에게 판다”에 관한 소비자태도가 종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다른 처분유형에 관한 소비자태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구자마다 연구대상 제품의 종류가 달랐고, 소비자 처분방법도 달랐고 연구결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환경보존태도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De Young(1986)은 자원을 신중하게 사용한 결과 얻은 만족감은 재활용 및 재이용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Hopper와 McCarlinielson(1991)도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처분행동의 중요한 동기요소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였다. 정영숙 등(1994)의 연구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는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에 비하여 환경보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순희와 계선자(1995)도 환경보존의식은 쓰레기처리에 관한 관심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박명희와 정주원(1995)은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 정도에 따라 처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환경의식이 강할수록 재활용처분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명희 등(1995)은 환경보존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환경보존의식과 제품처분효율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상복의 처분이유와 외출복의 처분방법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으나, 소비자처분행동은 환경보존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제품을 처분할 때 환경문제를 의식하고 가능한 한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처분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환경보존의식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과 정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

이론적 배경에 의하여 주부의 연령, 종교, 교육수준, 취업유무와 월평균가계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환경보전태도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보전태도는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의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주부소비자의 환경보전태도는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주부소비자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수행수준은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주부소비자의 환경보존태도는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수행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IV.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1)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가정에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내구재와 반내구재의 특성을 지닌 모든 상품을 조사대상상품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도시가계연보(통계청, 1992)의 가계수지항목분류를 토대로 하여 53가지의 상품을 선정하였다. 이 선정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서정희(1995)의 9가지의 소비자처분유형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9가지의 소비자처분유형 중에서 환경문제에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행동인 “집안이 복잡하므로 처분할 때가 된 것은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1점, 환경문제에 소극적으로 책임지려는 행동인 “언젠가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안 한 곳에 보관한다”는 2점,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행동들인 “처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여 이용한다”,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준다”, “중고품을 사려는 사람이나 중고상에게 판다”, “중고값을 인정받아 새 것을 구입하려 할 때 이용한다”,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등은 3점을 부여하였다. 이 후에 53개의 제품의 처분행동을 모두 더한 값을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점수로 하였다. 그러므로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점수는 53~159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문제를 의식하고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제품을 처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환경보전태도

환경보전태도는 서정희(1986; 1991)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환경보존과 관련된 15문항을 ‘적극 반대’의 1점부터 ‘적극 찬성’의 5점을 부여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환경보존태도 점수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 점수는 15점부터 75점 사이에 분포한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보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의 α 값이 .78로 나타나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임이 밝혀졌다.

2. 조사대상과 자료의 수집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내구재의 처분행동에 관한 의사결정과 실제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주부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소비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의도적인 표집을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458명이다.

조사방법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소비자처분행동 및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폐쇄형질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원이 조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게 한 후에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내용을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면접원은 가정생활조사법을 수강한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학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과 울산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교

육훈련원 2기 학생이고, 면접방법에 관한 교육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1993년 3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환경보존태도 및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분류분석을 하였다. 환경보존태도가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처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환경보존태도를 통제변수로 하여 중분류분석을 하였다.

4. 표본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령은 20세부터 60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20대가 18.4%, 30대는 38.2%, 40대는 30%, 나머지가 14%이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수는 2명 이하가 8.9%, 3명이 20.2%, 4명이 43.7%, 5명이 20.0%, 6~8명이 7.5%이다. 종교는 개신교 20.1%, 천주교 11.4%, 불교 46.0%, 기타가 2.5%, 종교가 없는 사람이 19.9%이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국민학교 졸업 이하가 9.1%, 중학교 졸업이 18.0%, 고등학교 졸업이 49.0%, 대학교 졸업 이상이 24%이다. 전업주부는 70.4%, 나머지 29.6%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99만원 이하가 14.5%, 100~129만원이 19.9%, 130~159만원이 21.6%, 160~199만원이 15.2%, 200만원 이상이 28.7%이다.

이상과 같은 표본의 특성을 평가해 보면 나이가 적은 사람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및 가계소득이 많은 사람이 약간 더 많이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이 기술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

의 크기가 크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2) 환경보존태도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소비자들의 환경보존태도점수는 42점부터 74점까지의 분포범위를 가지며, 평균은 61.85점, 표준편차는 5.51점이다. 환경보존태도에 적극 반대하는 응답자는 없으며, 반대하는 응답자는 0.2%, 찬성과 반대 미정인 응답자들은 33.5%, 찬성인 응답자들은 66.3%를 차지하였고, 적극 찬성하는 응답자도 없었다. 그러므로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소비자들은 환경보존에 대하여 대체로 찬성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중화학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V. 연구결과와 해석

1.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일반적 경향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점수는 84점부터 159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평균은 138.12점, 표준편차는 14.78점이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환경보존태도

〈표 1〉에는 주부소비자의 연령, 종교, 교육수준, 취업유무 및 월평균가계소득을 예측변수로 하고 주부소비자의 환경보존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중분류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 주부소비자의 환경보존태도는 주부의 종교에 따라서는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나, 주부의 연령, 취업유무 및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환경보존태도에 관한 중분류분석

총평균 : 56.22						
변 수	집 단	빈 도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주부의 연령	20-30	105	.76		-0.38	
	31-37	125	.46		-0.03	
	38-45	124	.14		.07	
	46-62	108	-1.43	.09	.33	.03
주부의 종교*	기독교	147	1.83		1.58	
	불교	210	-1.39		-1.24	
	기타	106	.21	.15	.26	.14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21	-2.84		-2.64	
	고졸	219	-.07		-.06	
	대졸이상	123	2.90	.23	2.69	.21
주부의 취업유무	비취업	299	.15		.28	
	취업	164	-.27	.02	-.52	.04
월평균가계소득	129만원이상	134	-.91		-.83	
	130-199	142	-.41		-.27	
	200만원이상	187	.96	.09	.81	.08
Multiple R Squared						.076
Multiple R						.276

* P <.05 *** P <.001

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5개 예측변수들은 주부소비자의 환경보존태도의 전체 분산중에서 7.6%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변수들의 독립적 효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설명력은 주로 주부소비자의 종교와 교육수준에 의한 효과임을 알 수 있다.

주부소비자의 환경보존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측변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전과 후 모두 주부의 교육수준이고 다음이 종교로 나타났다. 이 두 개의 예측변수들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설명력이 약간씩 감소하기 하였으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불교집단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집단에 비하여 환경보존태도가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의 다중범위검중에 의하면 불교집단이 천주교와 기독교집단이나 기타 종교집단에 비하여 의미 있는 차

이를 보였다. 울산의 경우 기독교단체나 교회가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환경보존태도는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이승신 등(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Scheffé의 다중범위검중에 의하면 중졸이하 집단과 고졸집단, 고졸집단과 대졸이상집단, 중졸이하집단과 대졸이상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보존태도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환경보존태도를 가지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은 소비자일수록 환경문제를 포함한 사회문제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환경보존태도는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이

승신 등(1993)과 변순희와 계선자(1995)의 연구와 일치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가설인데, 소득수준과 환경보존태도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졌을 뿐 아니라, 울산의 경우는 전국에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비자들도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표 2〉에는 주부소비자의 연령, 종교, 교육수준, 취업유무 및 월평균가계소득을 예측변수로 하고 주부소비자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수행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분류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 주부소비자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수행수준은 주부의 종교와 취업여부에 따라서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나, 주부의 교육수준, 연령, 취업유무 및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일원분산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 5개 예측변수들은 주부소비자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수행수준의 전체 분산중에서 2.8%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변수들의 독립적 효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설명력은 주로 주부소비자의 종교와 취업여부에 의한 효과임을 알 수 있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중분류분석

총평균 : 138.10							
변 수	집 단	빈 도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주부의 연령	20-30	105	.48		.64		
	31-37	125	-.46		-.48		
	38-45	124	1.47		1.20		
	46-62	108	-1.61	.08	-1.44	.07	
주부의 종교*	기독교	147	1.94		1.98		
	불교	210	-1.87		-1.84		
	기타	106	1.09	.12	.97	.12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21	.04		.88		
	고졸	219	-.30		-.43		
	대졸이상	123	.53	.02	-.10	.04	
주부의 취업유무*	비취업	299	.89		1.01		
	취업	164	-1.64	.08	-1.87	.09	
월평균가계소득	129만원이하	134	-.42		-1.13		
	130-199	142	-.65		.72		
	200만원이상	187	-.20	.03	.25	.05	
Multiple R Squared					.028		
Multiple R					.168		

* P <.05 *** P <.001

박명희와 정주원(199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 유무를 제외한 연령, 소득, 교육, 종교 및 주거형태 등의 변수에 따라 가구류와 가전제품의 처분활동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소비자처분행동과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수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부소비자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수행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전과 후 모두 주부소비자의 종교로 밝혀졌다. 주부소비자의 종교의 설명력은 $Eta=.12$, $Beta=.12$ 로 밝혀짐으로써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의 통제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주부소비자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수행수준은 종교가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인 집단이 가장 높고 불교집단이 가장 낮다. Scheffée의 다중범위검증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와 기타집단은 불교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유무로 집단을 분류한 박명희와 정주원(1995)의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전자제품류와 가구류의 경우 재활용처분행동의 비율이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불교집단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집단에 비하여 환경보존태도가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도 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기독교단체나 교회가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주부소비자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취업유무이다. 주부의 취업유무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전보다($Eta=.08$) 통제된 후에 설명력이 약간 더 증가한 것으로($Beta=.09$) 나타났다.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수행수준은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하여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하여 소득은 많으나 시간제약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되나 다른 면으로는 불편한 점이 많은 환경

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을 덜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환경보존태도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관계

<표 3>에는 환경보존태도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환경보존태도는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과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으나, $r=.11$ 로 매우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환경보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주부소비자일수록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할 때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환경보존태도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들을 들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대부분의 소비자학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로서 소비자태도와 소비자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거나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인데 소비자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중요한 이유로는 재활용의 경우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관하여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 및 환경문제전문가들조차도 인식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쓰레기의 원천을 감소시키는 전략의 하나인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을 미국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급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리산업의 대변인은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Melosi(1981)가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낮은 소비자들의 과소비성향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과소비성향은 제품의 상징성을 통하여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소득

층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나 반내구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환경보존태도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간의 상관관계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환경보존태도	.11**

** P<.0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시소비는 제품의 지위상징성 인식,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제품 및 유명상표 선호, 국산품보다는 외제품선호, 가능한 한 고급제품 구입 및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고가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 등의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결과에서도 과시소비성향은 고소득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소득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백경미,1995).

주부소비자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과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분류분석에서 의미 있는 변수인 주부의 종교와 취업유무를 독립변수로 하고 환경보존태도를 통제변수로하여 중분류분석을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중분류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측정된 변수가 통제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 주부소비자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수행수준은 주부의 취업여부와 통제변수인 환경보존태도에 따라서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나, 주부의 종교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3개 예측변수들은 주부소비자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수행수준의 전체 분산중에서 3.2%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변수들의 독립적 효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설명력은 주로 주부소비자의 취업여부와 환경보존태도에 의한 효과임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종교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만을 포함시킨 모델에서는 의미 있는 변수로 밝혀졌으나 환경보존태도를 포함시킨 모델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주부소비자의 종교는 환경보존태도에는

〈표 4〉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관한 중분류분석

총평균 : 138.10						
변 수	집 단	빈 도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주부의 종교	기독교	147	1.62		1.43	
	불교	210	-1.91		-1.69	
	기타	106	1.53	.12	1.37	.10
주부의 취업유무*	비취업	299	1.04		1.02	
	취업	164	-1.89	.09	-1.86	.09
환경보존태도*						
Multiple R Squared					.032	
Multiple R					.180	

* P <.05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나 환경보존태도를 통제하면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 결론과 제언

우리나라 최고의 공업도시면서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구재와 반내구재 53개를 선정하여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과 관련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환경보존태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내구재와 반내구재를 처분할 때 환경문제에 관하여 소비자 자신도 소극적인 책임감만을 지니고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조장하기 위해서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및 행정부는 소비자들이 재이용을 보다 쉽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의식과 행동을 불식시키는 소비자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

둘째,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소비자들의 환경보존태도에 가장 큰 독립적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이고 그 다음은 주부의 종교이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환경보존태도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소비자들의 높은 환경보존의식이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시행되고,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의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부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주부의 종교이고 그 다음이 주부의 취

업유무이다. 그러나 환경보존태도를 통제한 결과 종교는 의미가 없는 변수로 밝혀지고 주부의 취업유무와 환경보존태도만이 의미 있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취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이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점에 관하여 소비자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주부소비자들의 환경보존의식과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관계의 강도가 매우 낮았다. 소비자들은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수준은 높으나 이를 실천하는 정도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및 쓰레기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는 매스컴이나 반사회 등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구재나 반내구재를 재이용하는 것이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설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환경보존의식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으므로 이들 변수 이외에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양식이나 다른 사회심리적 변수들을 포함한 후속연구와 함께 소비자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1) 강이주(1989).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권봉애·강이주(1995). 아동의 환경의식과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 도시와 농촌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35-44.
- 3) 김영희(1995). 한국 대학생들의 환경보호 행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2호, 43-56.

- 4) 노채영·신효식·조혜정(199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2호, 49-62.
- 5) 박명희·정주원(1995). 소비자처분행동 유형과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 가사용내구재의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22-34.
- 6) 박명희·박명숙·유혜경·박미혜(1995).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사용 및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 자원활용 측면의 소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79-87.
- 7) 변순희·계선자(1995).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에 따른 쓰레기처리에 관한 관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3호, 88-101.
- 8) 서정희(1986).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서정희(1991).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과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2호, 93-101.
- 10) 서정희(1995). 소비자처분행동 및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16호, 70-94.
- 11) 오연옥·송말희·한정화·황경혜(1995). 환경보전에 관한 인지와 관리행동: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권 1호, 45-60.
- 12) 이민표(1994). 노인소비자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사용과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이병찬(1987). 생태적 관심을 가진 소비자의 특성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이승신·이혜임·류미현(1993).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능력. 소비자학연구 제4권 2호, 73-96.
- 15) 이주형(1994).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통한 환경의식적 소비자의 특성분석. 대구경북마케팅학회 마케팅논집 제3집 2권, 97-114.
- 16) 정영숙·안길상·이기주(1994).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하는 소비자의 특성. 충북가정학회지 제3권 1호, 95-106.
- 17) 최남숙(1994). 환경교육과 환경의식이 환경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5호, 29-43.
- 18) 통계청(1992). 도시가계연보.
- 19) 한국소비자보호원(1991). 소비자시대 2월호.
- 20) 황인창(1990). 생태적 마케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소비자의 특성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1) 현금희(1990).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일치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Arbuthnot, J.(1977). The role of attitudinal and personality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environmental behavior and knowledge. *Environment and Behavior* vol.9, 217-232.
- 23) Brooker, G.(1976). The self-actualizing socially conscious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3. no.2, 107-112.
- 24) Burke, M., Conn, W.D. & Lutz, R.J.(1978). Using psychographic variables to investigate product disposition behaviors. *Proceedings, Educators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321-326.
- 25) Constantiny, E. & Hanf, K.(1972). Environmental concern at lake Tahoe:A study of perceptions, backgrounds and attitude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4, 209-242.
- 26) DeBell, M. & Dardis, R.(1979). Extending product life:Technology isn't the only issue. Wilkie, W. ed..*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VI.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381-385.
- 27) De Young(1986). Some psychological aspects of recycling: The structure of conservation satisf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vol.18, 435-449.
- 28) Hanson, J.W.(1980). A proposed paradigm for consumer product disposition process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14. no.1, 49-67.
- 29) Harrel, G.D. & McConocha, D.M.(1992). Personal factors related to consumer product disposal

- tendenc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 26. no.2, 397-417.
- 30) Hooper, J.R. & McCarlnielsen(1991). Recycling as altruistic Behavior: Normative and behavior strategies to expand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recycling program. *Environment and Behavior* vol.23, 195-220.
- 31) Jacoby, J., Berning, C. K. & Dietvorst, T.F.(1977). What about disposition?. *Journal of Marketing*. vol.41, 22-28.
- 32) Kinnear, T.C., Taylor, J.R. & Ahmed, S.A.(1974). 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s: Who are they?. *Journal of Marketing*. vol.38, 20-34.
- 33) Nicocia, F.N. & Mayer(1976). Toward a sociology of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3. no.2, 65-75.
- 34) Peters, W.H.(1974). Who cooperates in voluntary recycling efforts?. *Proceedings of the 36th Combined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505-508.
- 35) Purcell, A.H.(1980). *The Waste Watchers: A Citizen's Handbook for Conserving Energy*. New York: Anker Press? Doubleday.
- 36) Rassuli, K.M. & Harrell, G.D.(1990). A new perspectives on choic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17, 734-744.
- 37) Razzouk, N.Y.(1980). Disposition of consumer durable goods: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nn Arbor. MI: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26-127.
- 38) Tucker, L.R., Jr.(1981).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14. no.2, 326-340.
- 39) Tognacci, L.N., Weigel, R.H. & Widden, M.F. (1972). Environmental quality: How universal is public concern?.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4, 326-340.